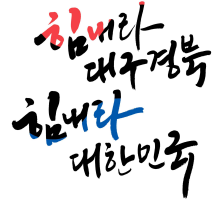
 산업통상자원부		<h1>보도자료</h1>		
http://www.motie.go.kr				
2020년 6월 5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6.4(목) 11:00부터 보도 가능)				
배포일시	2020. 6. 4(목)	담당부서	신남방통상과	
담당과장	배성준 과장(044-203-5710)	담당자	박수정 사무관(044-203-5712)	

기업인 이동 신속통로, 아세안 국가로 확대 추진

- 성윤모 장관, 특별 아세안+3 경제장관 화상회의 참석 -
- 기업인 이동 보장, 시장개방 확대, 포스트 코로나 협력 등 제안 -

□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6월 4일(목) 개최된 「특별 아세안+3 경제장관* 화상회의」에 참석하여, 코로나19 현황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,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아세안+3 경제장관 공동 성명 채택에 합의하였음.

* 참석자(잠정) : 한국 산업부 장관, 아세안 10개국 경제장관 및 아세안 사무총장, 중국 상무부 부장, 일본 경산성 대신

○ 이번 경제장관회의는 지난 4월 개최된 「아세안+3 특별 화상 정상회의」에서 정상들이 합의한 경제 분야 협력 관련 이행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됨.

□ 성 장관은 금번 장관회의에서,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정상회의에서 강조했던 ‘필수적 기업인의 국가간 이동 보장’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, 향후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아세안+3 국가 간 협력방향으로 ①시장개방 유지·확대 및 상품·서비스의 이동 원활화, ②기업인의 필수적 이동 보장, ③코로나 이후를 대비한 협력 확대 등을 제시하였음.

- 특히 기업인 이동 보장과 관련하여, 현재 한-중간 시행중인 ‘기업인 이동 신속통로’를 우리 기업들의 진출 수요가 많은 ASEAN 역내 다른 국가로 확대하자고 제안하였으며
 - 포스트 코로나 대비 협력방향으로는 디지털경제 활용, 산업기술·표준 협력 플랫폼 구축·활용 그리고 K-방역 경험공유 및 방역 관련 산업협력 확대 등을 제시하였음.
- 회의에 참석한 아세안+3 경제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필수재화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비관세장벽 및 무역제한조치 자제, 필수 기업인 이동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, 디지털 경제를 통한 중소기업 역량강화, RCEP 서명을 통한 역내경제통합 강화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음. 끝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
신남방통상과 박수정 사무관(044-203-571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